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순환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농림부가 주최하고 농협중앙회, 한국농어민신문 주관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 순회 세미나'가 지난 9월 18일 월요일 수원 농촌진흥청 대강당에서 시작되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재용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장,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을 비롯한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관계자 및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경종과 축산농가들이 자연순환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자연순환농업의 정책방향, 퇴·액비 활용 영농지도 사례, 자연순환농업 실천 사례, 퇴액비 활용 영농기술 사례 등이 발표와 함께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액비 질소함유량 0.3% 밑으로 조정
총체보리 재배 5만ha까지 확대 계획**

이날 세미나에서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은 농림부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비료분류 체계를 보통비료와 유기질비료로 개편하고 가축분을 주원료로 사용할 경우 축분퇴비로 표기토록 하는 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편이 강력히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 더불어 액비 공정규격을 개편하여 0.3%인 질소함유량 기준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특히 “퇴액비 살포 민간업체 육성과 우수 살포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협중앙회에 자연순환농업 전담 기구를 신설해 농가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액비 대량 수요처 확보를 위해 사료용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2010년까지 5만ha로 확대하고 퇴액비를 사용해 유기사료를 생산하는 영농단체에는 기계 장비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구축돼야”

이어 최홍림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

해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해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친환경 생태 농업체계에 속에 고리역할을 하는 핵심시설로서 친환경 벼생산단지, 발작물단지, 과수단지, 퇴비장, 축산단지, 산지유통시설 등 다양한 관련시설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가급적 봄·가을에 살포 바람직
작물 생육기간 중 사용 자제될”**

박홍재 농촌진흥청 지도사는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가축분뇨가 충분히 부숙된 것인지, 냄새는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며 “토양이 얼어붙은 겨울과 여름철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봄과 가을에 살포하며 식용작물은 파종 15일전까지 뿌리고 작물 생육기간 중에는 액비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액비사용시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일 100톤 규모 공동자원화 시범사업
2개소 실시 예정**

한편 농림부는 1일 100톤 이상 처리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 시범사업 대상 2개소를 선정하는 등 자연순환농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설치는 가축분뇨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 최홍림 서울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해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능력이 부족한 개별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통해 퇴·액비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업대상자는 가축을 밀집사육하고 있거나 중규모 이상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의 농·축협 또는 영농조합법인이며 개소 당 25억원이 각 각 지원된다.

이와 관련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은 “이번 사업이 2007년 상반기 중에 시행착오 없이 착수되고 퇴·액비 유통이 활성화되는 등 가시적인 운영성과를 보일 경우 2008년부터 확대 보급해 자연순환농업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토론

**축산농가, 퇴액비 품질 제고... 경종농가 확대 유도
생산 농산물 유기농 인정, 홍보강화·판로 확보해야**

▲이강수 용인 원삼농협 조합장 = 축산분뇨의 해양투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축산농가는 스스로 고품질의 퇴액비를 생산해내도록 노력해야한다. 양질의 축분 생산이 전제가 돼야 자연순환농업을 제대로 이룰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부, 학계 모두 자연순환농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경종농가를 이끌어 줘야한다. 정부, 농가 모두 힘을 합쳐 자연순환농업이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등수 강원 양돈축협 조합장 = 양돈을 하는 조합장으로서 자연순환농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축산분뇨의 해양투기 쿼터량이 2012년까지 400만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앞으로 해양투기를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톤당 1만 5000원하던 해양투기 비용이 현재 2만 3000원~2만7000원까지 상승했다. 자

연순환농업을 통해 축산분뇨를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종농가의 인식은 부족하다. 자연순환농업을 원활히 하려면 먼저 경종농가의 마음을 여는 노력이 필요하며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상생하는 농업이 자연순환농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이다.

▲조윤중 한국쌀전업농경기도연합회 회장 = 아직까지 경종농가들이 퇴액비 사용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양돈농가와 쌀 농가 다시 말해 축산농가와 경종농가가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치돼야 한다. 현재 12개의 양돈농가들이 모여 자연순환농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에 대해 좋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역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축산농가는 양질의 퇴액비를 만들기 위해 6개월 이상 충분히 발효된 제품을 만들고 경종농가의 등급이 낮은 쌀을 가축사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김우재 한농연이천시연합회장 = 가축분뇨가 유기질 비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가축분뇨가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종농가는 고품질의 가축분뇨를 원하고 있으나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액비는 악취발생과 운반, 살포 등의 불편함이 많다. 경종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퇴액비 사용 지침이 필요하며 안전하게 사용,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 또 퇴액비를 이용해 키운 농산물을 유기농산물로 인정,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하고 판로를 확보해 소득 향상을 꾀해야 한다. 축산농가에서 절감된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경종농가에게 지원해주는 등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상철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장 = 사실상 자연순환농업은 축산과 경종농가의 불씨만 피워주면 활할 타오를 수 있다고 기대했고 현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퇴액비사업을 축산농가가 자원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가축 분뇨를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를 불식시키고 경종농가가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퇴액비 시범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말로만 축산과 경종이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 모델을 찾아야 한다. 경종농가가 퇴액비를 사용해 생산한 쌀을 팔아주는 방법이나 관내 작목반과 연계하는 방법 등 실질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 **양돈**